

10월4일 월요일

마태복음 9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본장 14-17절에는 금식의 규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세 율법이 명한 금식은 1년에 하루 속죄일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종교 형식 속에 담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도 두 번이나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 형식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와 같아서, 주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 의무와 종교적 경건의 틀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금식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장 상을 받을 것이요

본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3가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 1)
- 2)
- 3)

*영향력이 있고, 크고 중요한 사람에게 잘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11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장에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초대할 하고 계시나요?

*멍에가 소 두 마리가 끄는 도구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가벼운 일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 그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12장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본장에서는 표적을 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요나의 사건은 무엇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가요?

10월5일 화요일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본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3-23절)가 나오는데, 밭의 비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도 열매가 다른 것은, 씨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 때문입니다. 각 비유에 나오는 밭들은 어떤 마음 밭인지 찾아 보세요.

- 1)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림:
- 2) 돌밭에 떨어져 해가 돋은 후 말라버림:
- 3)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림:
- 4)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음:

14장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이다.

본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만 오천명(실제로는 이만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은, 어떤 작은 음식으로 시작되었나요?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적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십니다.

15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본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림(고르반)'이라고 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외식(위선)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십니다.

"이 백성이 ()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 경배하는도다."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본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월6일 수요일

17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본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 세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을 써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17절)

18장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는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께서도 너희에게 이와같이 하시리라."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고 만 달란트는 60,000,000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만 달란트는 주 6일을 꼬박 일해서 20만년을 일해야 되는 액수이고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무한하다는 것을 수치로 표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데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본장에는 영생에 관해 궁금한 점이 많았던 한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 그 청년을 근심하게 했나요?

20장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본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1-16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자신들이 세운 공정함의 잣대로 계산될 수 없으며, 또한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시작과 끝에 반복되는 중심구절을 찾아 써 보세요. (19:30, 20:16)

10월7일 목요일

21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2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는 스가랴 9:9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무력으로 로마를 뒤엎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니니, 그는 ()하여, () 곧 멍에 메는 짐승의 끼를 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22장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본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합니다.(41-46절) 예수님은 시편 110:1절을 인용하여 "주(하나님)께서 내 주(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그리스도)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한 것은 주님께서 혈통으로는 ()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이미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주간에 당신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더욱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본장에서 예수님은 일곱 번에 걸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책망과 저주의 핵심은 한 마디로 '외식하는 태도'입니다. 본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도 깨끗하리라."

24장 무화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본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십니다(32-51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죽음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월8일 금요일

25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본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31-46절).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전 인류는 양과 염소로 분류됩니다. 양은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을, 염소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나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단순히 가난하고 약한 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곧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간주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6장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26-27장은 주님께서 잡히시어 심문을 받으시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시는 수난을 기록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만큼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39절, 42절, 44절)

27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긴 본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슬프면서도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으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낮아지심은 오직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만이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본장을 읽으며 더욱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지상명령)을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0월9일 토요일

마가복음 1장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본장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주요 사역 3가지(전도와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심, 병을 고치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동참하여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장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안식일의 문제가 등장합니다(23-28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때 다윗과 따르는 이들이 제사장만 먹게 되었던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끌어내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하십니다(삼상 21:1-6). 예수님은, 안식일은 ()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안식일의 주인은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마치 눈치를 보거나, 어려운 짐을 지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나요? 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 아닌 의무로 주일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날로 보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3장 어느 것이 옳으냐?

본장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적은(1-6절), 앞장에 나온 안식일 논쟁의 연장입니다. (2:23~28)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보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셨나요? "안식일에 ()과 악을 행하는 것, ()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4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본장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적 사건을 기록합니다(35-41절).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소란하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 ()"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고요하고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